

K-기획전시(Special Exhibition): 혼신의 글쓰기: 김윤식의 한국현대문학사

오준호*

1. 전시의 개요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지하 1층에 위치한 전시실에서는 2024년 10월 1일(화)부터 2024년 12월 31일(화)까지, <혼신의 글쓰기: 김윤식의 한국현대문학사>라는 기획전시를 진행한다.

한국 현대문학 연구의 거장인 김윤식 교수(1936~2018)는 2018년 10월 25일에 세상을 떠났다. 그는 1968년 서울대 교양과정부 전임강사로 임용된 이래 2001년까지 본교에서 교편을 잡으며 현재 한국국문학계를 이끌어 가는 많은 제자를 양성했다.

김윤식 교수는 일평생 동안 200여 권의 저서를 남겼다. 이러한 그의 업적을 위하여 전시가 기획되었다. 전시는 1부 '시간: 책의 연대기', 2부 '행위: 읽고, 쓰고, 가르치기(제1장 쓰다, 제2장 만나다. 제3장 가



혼신의 글쓰기
김윤식의 한국현대문학사

2024.10.1-12.31

관람시간: 평일 오전 10시~오후 6시
휴일: 평일 오전 10시~오후 6시, 휴일 오전 10시~오후 5시
세종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전시실(관람료 무료)
1520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Writing from the Heart
A History of
Modern Korean Literature
by Yoon-wol Kim

1 Oct. - 31 Dec. 2024

Kyunggi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IKS)
Building 101, Gyeonggi-Multi-Campus,
1 Gwangju, Gyeonggi-do,
South Korea



www.ikspk.ac.kr

* 현재 강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대학원생이다. 한국 철도 문학과 문화 전반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작업과 학문에 정진하고 있다. ojhg6407@naver.com

르치다, 제4장 남기다)', 3부 '공간-서재'로 이루어졌다.

2. 전시의 구성



전시 구성은 197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의 김윤식 교수의 저서들이 출간 순서대로 배치되어 있다. 관람객들은 각각의 시기별 저서의 서문과 목차를 읽으면서 김윤식 교수의 폭넓은 학문적 성과를 체감하고, 다양한 형식과 다양한 문체의 글쓰기를 시도했던 그의 글쓰기 인생을 마주하게 된다.

전시의 구성과 차례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김윤식의 책들을 출간 순서대로 배치한 제1부 '시간-책의 연대기', 그가 수집한 자료들과 필기구, 원고, 강의록, 장례 때의 추도식 안내 책자 등을 보여주는 제2부 '행위-읽고, 쓰고, 가르치기', 그리고 그의 서재를 재현한 제3부 '공간-서재'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한 책들은 태블릿피치와 복사물을 통해 관람객이 서문과 목차를 읽을 수 있게 했다.

그가 주력한 문인 평전 분야의 대표작 가운데 하나인 '이광수의 그의 시대' 연재 원고(원고 제목은 '이광수와 그의 시절')와 연재 구상 메모철, 1988년 9월20일 당시 한국일보 문학 담당이었던 김훈 기자에게 보낸 편지 사본, 소설가 이청준이 동향 화가 김선두의 부채 그림

을 그에게 선물하면서 보낸 짧은 편지, 1950년대의 습작 소설 원고와 구상 메모, 그리고 그가 번역을 했지만 책으로 출간하지는 않은 지외르지 루카치의 ‘소설의 이론’ 번역 원고 등이 고인의 생전 자취를 생생하게 전해 준다. 마르크스주의자인 루카치의 책은 당시만 해도 금기에 묶여 있어서 “서울대에서 증명서를 받아 가지고 명동 소피아 서점(독일어 책 전문 서점)에서 산 것”이라고 가정혜씨는 알려주었다. 루카치는 헤겔과 함께 김윤식의 문학론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이론가이고, 강의실에서 그는 루카치 ‘소설의 이론’ 도입부를 자주 낭송했는데, 김윤식 자신의 번역은 널리 알려진 번역문과는 달라서 오히려 그의 체취를 느끼게 한다.

전시 제2부 4장 ‘남기다’에는 김 교수 사후 가정혜씨가 서울대에 기증한 ‘김윤식 학술기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김윤식 학술상과 강좌 운영 규정이 전시되어 그가 거느린 그림자를 알게 한다. 그와 함께, 2023년 3월에 최진석 등 공저자 5명이 쓴 학술논문 ‘김윤식과 우리 시대, 인용의 인구사회학적 시좌’는 2004년에서 2019년까지 현대문학 분야 논문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저자들을 조사해 보여주는데, 김윤식이 3096번으로 단연 1위에 올라 있고 권영민(962)과 김재용(847), 이광수(807)가 큰 차이로 그 뒤를 따르고 있다. 전시에는 2001년 9월 그가 행한 퇴임 강연 ‘갈 수 있고, 가야 할 길, 가버린 길’ 원고도 나와 있거니와, 전시장 입구의 발췌문 패널에 그 강연 한 대목이 포함되어 눈길을 끈다.¹

1 저서 200여종…김윤식 ‘혼신의 글쓰기’ 자취를 엿보다. <한겨레>. 2024년 10월 9일자.

